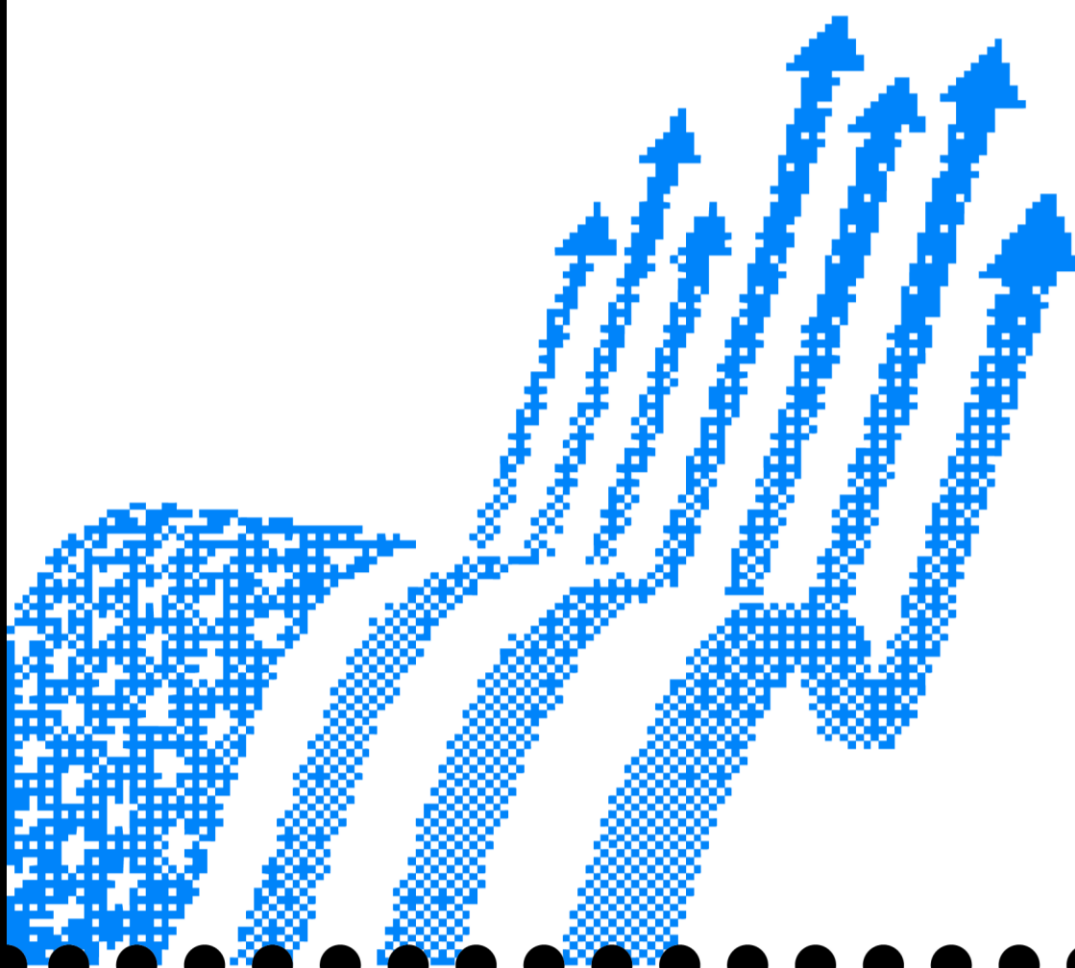


다녀왔습니다, 텍사스

03 미국은 앞으로도 성장한다



Publisher

토스증권 리서치센터

Analyst

이지선

Date

2025. 09. 24

Episode

03



우리가 미국에 가는 이유

토스증권 리서치센터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직접 보고, 듣고,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현지에 직접 가보면 놀랍거나 설레는 순간도 있고, 때로는 예상했던 것과 달라 의아한 상황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은 재무제표, 공시, 뉴스 같은 정보에 더해져 새로운 투자 인사이트를 일깨워줍니다.

미국에서 직접 발로 뛰며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개인 투자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글로 현장의 분위기를 전부 전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지에서 느낀 바를 최대한 생생하게 담아보았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 발견한 투자 인사이트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번 출장의 두 번째 행선지는 텍사스였습니다.

텍사스는 석유, 가스 기업들이 모여 있는 전통 에너지 산업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텍사스 하면 석유 부자, 카우보이, 목장 등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직접 가보니, '실리콘힐즈(언덕이 많은 실리콘밸리)'라는 별명처럼 텍사스는 빠르게 변화하는 중이었습니다. NASA를 필두로 미국 우주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 지역에 대규모 거점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전통 에너지 산업부터 테크, 전기차, 우주까지! 텍사스에는 미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주제는 '미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입니다.

텍사스는 미국에서 인구와 경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주이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인구가 몰리고 있으며, 경제 성장을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1위 선진국 미국이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보여줍니다. 미국은 이제 뉴욕과 캘리포니아 같은 전통적 성장 주에만 기대지 않고, 텍사스를 비롯한 새로운 거점들이 미래 성장의 무대를 열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반도체·전기차·우주산업, 플로리다는 금융·고급 부동산, 조지아는 전기차·배터리·물류, 워싱턴은 클라우드·항공우주를 중심으로 각기 다른 성장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은 단일 경제가 아닌 거대 주들의 연합체이기에,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성장 사이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그 지역들의 성장 스토리와 투자시 시사점을 다뤄봤습니다.

투자가 필수인 시대, 여러분이 조금 더 편안하게 오래도록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낮선 땅에서 담아온 순간들이 투자 여정에 따뜻한 숨결 하나 보태기를 바라며,

2025. 9. 24

토스증권 리서치센터

Intro. 텍사스 사람들의 여유에서 느낀 것

작년과 올해, 미국 출장을 다니면서 받은 인상이 늘 좋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방문한 실리콘밸리는 세계 최고 기업과 인재들이 모인 곳답게 활기찼지만, 사람들이 하나같이 바빠 보이고 물가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워싱턴 D.C. 거리에는 양복 입은 직장인과 대낮부터 취한 듯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는데요. 역시나 물가는 비쌌습니다.

텍사스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하고, 날씨는 쾌적하며, 도시 분위기는 여유로웠습니다. 실제로 숙박비도 캘리포니아 대비 체감상 20%가량 낮았고, 호텔 직원들도 한국에서 온 방문객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한인 식당조차도 특히 더 친절하느 느낌이었습니

제가 텍사스에서 받은 인상은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일자리가 많고, 주택 가격과 생활비 부담도 비교적 낮으며, 교육 및 주거 환경이 만족스러운 곳. 그래서 사람이 모이고, 기업은 투자를 늘리면서, 도시가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텍사스는 현재 미국에서 경제 규모와 영토, 인구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초대형 주인데요. 인구 증가와 함께, 2000 년 이후 연평균 경제 성장을 또한 미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반면, 물가는 캘리포니아나 뉴욕은 물론 미국 평균에 비해서도 낮습니

텍사스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미국은 아직 성장할 여지가 더 많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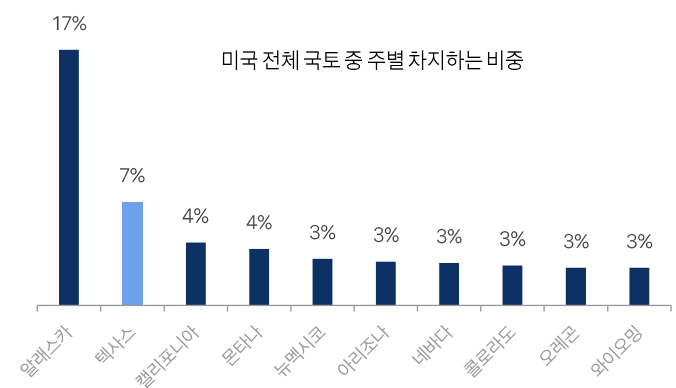
물론 미국은 이미 세계 1 위 선진국입니다. 패권 유지를 위해 MAGA 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DOGE 도입으로 내실을 다지고 있지만, 걱정거리도 많은 나라죠. 너무 바쁜 도시와 높은 도시 물가, 마약과 총기가 합법화된 생활환경, 그리고 세계 1 위를 찍었으니 내리막길밖에 안 남았다는 우려가 공존합니다.

미국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다음 성장은 어디에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텍사스에서 미국의 미래를 봤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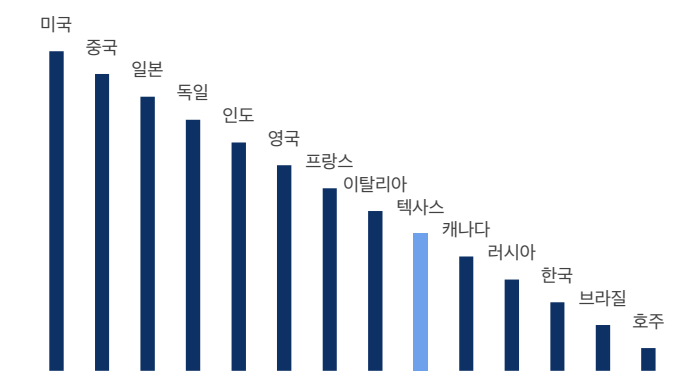
텍사스를 비롯한 새로운 성장 거점이 향후 미국의 성장을 이끌 것입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텍사스에서 제가 본 것을 토대로 미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Data-1] 땅의 크기: 텍사스는 미국에서 알래스카 다음으로 사이즈가 큰 주(State)



출처: World Bank, 토스증권

[Data-2] 텍사스의 경제 규모는 세계 8위 수준으로, 한국보다 크다



출처: World Bank, BEA, 토스증권 (2024)

1 텍사스 물가는 미국 평균에 비해서는 3%, 뉴욕과 캘리포니아에 비해서는 각각 10%, 15%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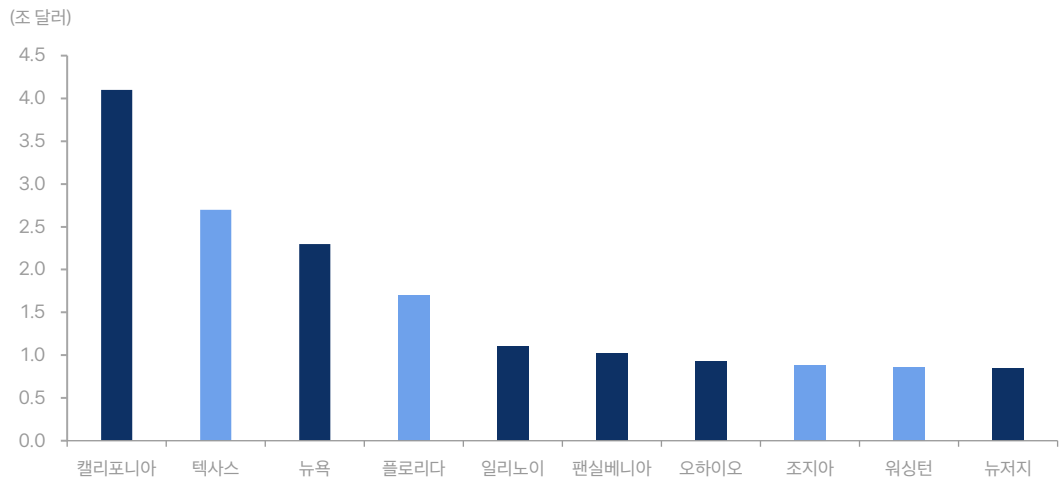
1. 미국의 성장 거점이 바뀌고 있다

오랜 기간 미국 경제의 성장은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가 주도해 왔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는 금융의 심장부였고,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실리콘밸리는 글로벌 혁신의 중심이었죠.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인구 이동, 기업 본사 재배치, 대규모 산업 투자, 인재 공급 등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성장 거점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워싱턴 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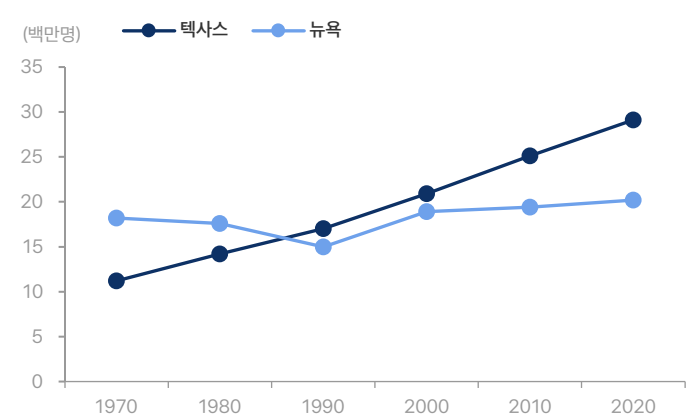
우선 이 중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텍사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Data-3] 미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워싱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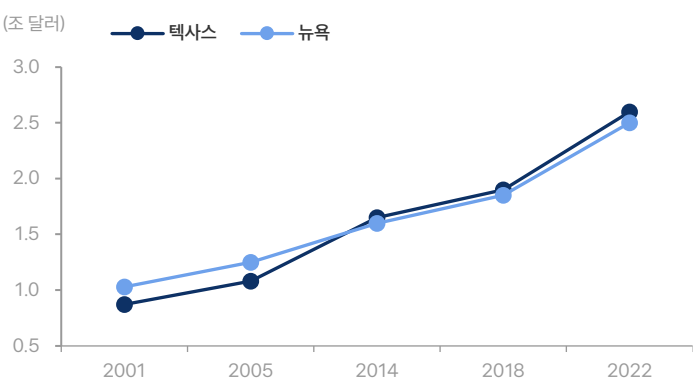
출처: 토스증권, BEA (지역별 GDP, 2024)

[Data-4] 텍사스 인구는 1990년대부터 뉴욕을 앞질렀지만,



출처: US Census Bureau, 토스증권

[Data-5] 경제 규모까지 앞지른 것은 10년 남짓이다.



출처: BEA, 토스증권

1-a. 텍사스는 과거에도 잘나갔다

현재 텍사스는 반도체, 전기차, 우주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에도 텍사스는 석유 산업, 우주 탐사(냉전기), 항공 및 군수 산업 등을 통해 미국 성장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1) 석유 산업: 텍사스의 석유는 산업화 및 군사력 강화의 원동력이었습니다.

- 1901년 스피들톱(Spindletop) 유전이 발견되면서 텍사스는 세계 석유 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이 유전은 하루 10만 배럴을 생산하며 미국 내 원유 공급을 혁신적으로 늘렸습니다. 텍사스의 석유는 두 번의 세계대전과 냉전기를 거치는 동안 미국이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휴스턴과 댈러스는 석유 산업의 본거지로 성장했고, 지금도 미국 석유 산업 시가총액 1위 엑손모빌은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2) 우주 개발: 텍사스는 냉전기 미국의 기술 우위를 입증한 무대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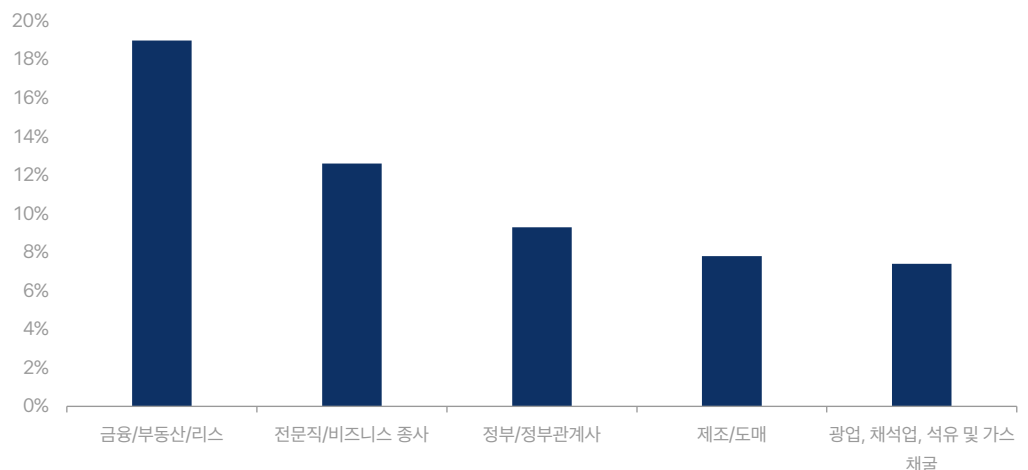
-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휴스턴을 NASA 존슨우주센터의 본거지로 정했습니다. 이곳에서 아폴로 프로그램이 시작됐고,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은 “휴스턴, 문제가 생겼다”라는 문구와 함께 미국 우주산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NASA 존슨우주센터는 현재도 1만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며 미국 유인 우주탐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3) 국방 산업: 텍사스는 항공 및 군수 산업에서도 오랫동안 전략적 요지였습니다.

- 댈러스 지역의 록히드마틴 시설에서는 전투기 F-16, F-35가 생산됐고, F-35는 지금도 텍사스 포트워스에서 조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잉은 텍사스에서 다양한 군수 생산 기지를 운영하며 공급망을 뒷받칩니다.

이처럼 텍사스는 이미 빠른 산업 발전과 인구 증가를 경험한 지역입니다. 과거에 갖춰진 기반 시설이나 축적된 자산을 활용하면 아무래도 새로운 산업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죠. 텍사스가 빠르게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Data-6] 텍사스 GDP 산업별 기여도: 제조/도매, 석유 및 가스 채굴 사업이 눈에 띈다



출처: BEA, 토스증권 (2024년 Top 5 기여 산업)

2. 텍사스의 성장 비결

텍사스는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한 주 가운데 하나인데요. 인구 증가, 일자리 수 증가, 경제 성장을 모두 전미 최고 수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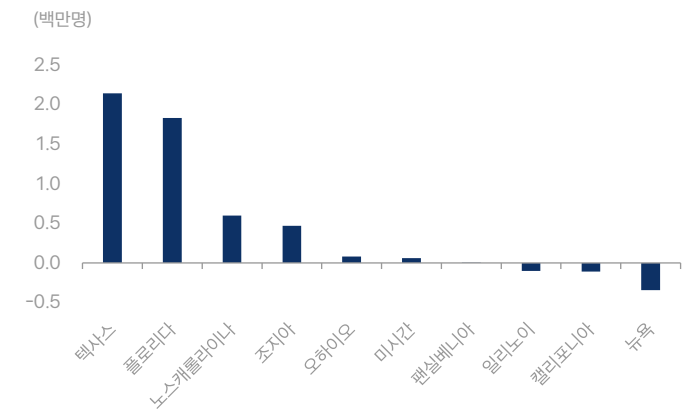
- **인구 증가:** 2020 년 이후 텍사스 인구는 약 200 만명 증가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미국의 모든 주 중 가장 큰 수치입니다. 현재 추정 인구는 3,200 만명으로, 미국의 단독 주 가운데 인구수 3,000 만명이 넘는 주는 캘리포니아(3,900 만명 추정)와 텍사스뿐입니다.
- **일자리 증가:** 2024 년 기준 연간 28 만건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었는데, 이는 전미 1 위 수준일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18 만건)와 뉴욕(13 만건)을 크게 앞섭니다.
- **경제 성장:** 경제 성장을 또한 전미 평균을 웃돌 뿐 아니라², 2000 년 이후의 장기 성장률로 보았을 때, 전미 1 위 수준의 가파른 성장을 보여줬습니다.³

이 지표들은 텍사스가 단순히 지역 성장에 그치지 않고 국가 성장 엔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연방 정부는 텍사스가 반도체, 에너지, 우주산업 성장의 거점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에 따라 지방 정부는 급격한 인구 유입을 흡수하고, 기업 친화적 환경을 유지하고 있고요. 대기업들도 비용 효율성, 안정적인 인재 파이프라인, 혁신 생태계에 대한 기대를 갖고 텍사스로 모여드는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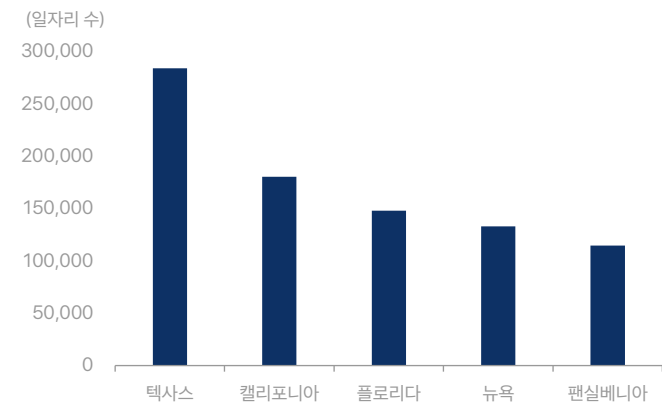
그 결과, 텍사스는 앞으로 미국의 전략 산업을 비중 있게 담당할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Data-7] 텍사스의 인구 증가 규모는 미국에서 가장 크다.



출처: US Census Bureau, 토스증권 (코로나 이후 인구 이동 늘어난 2020~2024년)

[Data-8] 일자리 수 증가 미국 최대



출처: BLS, 토스증권 (2024)

2 텍사스 3.6% vs. 전미 2.8%, 2024년 실질 경제 성장률 기준.

3 텍사스 5.5% vs. 전미 4.5%, 2000~2024년 장기 성장률 기준.

2-a. 대기업들이 텍사스로 오는 이유

텍사스는 기업 본사 및 캠퍼스⁴, 대형 공장 등의 입지로 매력적입니다. 낮은 비용 구조, 지역 정부의 친기업적 기조, 연방 보조금이 맞물리며 '본사'와 '공장'이 동시에 옮겨왔는데요. 이는 또 다시 인재 유입으로 이어져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낮다

- BEA의 지역물가지수(RPP)에 따르면 텍사스의 전반 물가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캘리포니아보다 의미 있게 낮습니다. 이는 임직원은 물론 기업에게도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요인입니다.
- 또한 텍사스는 개인과 법인의 주 소득세(State Income Tax⁵)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기업들이 텍사스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2) 친기업 기조 및 보조금

- 반도체 기업들은 텍사스에 파운드리를 지으려 합니다. 칩스법(CHIPS Act)에서 정한 보조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인데요. 미국 안에서도 텍사스를 택한 이유는 연방 정부의 보조금과 더불어 주정부/시정부 차원에서의 추가 인센티브(보조금, 세금감면 등)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업의 대표격으로 삼성전자를 들 수 있습니다.
- 주정부 차원 인센티브로는 'The Texas Enterprise Fund(TEF)', 'The Governor's University Research Initiative', 'The Texas Skills Development Fund' 등이 있습니다. 이중 TEF는 미국 최대 규모의 '딜클로징⁶(deal closing)'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텍사스 내 사업 후보지가 다른 주(State)와 경쟁 중일 때 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에게 제공하는 자금입니다.

3) 텍사스를 선택한 기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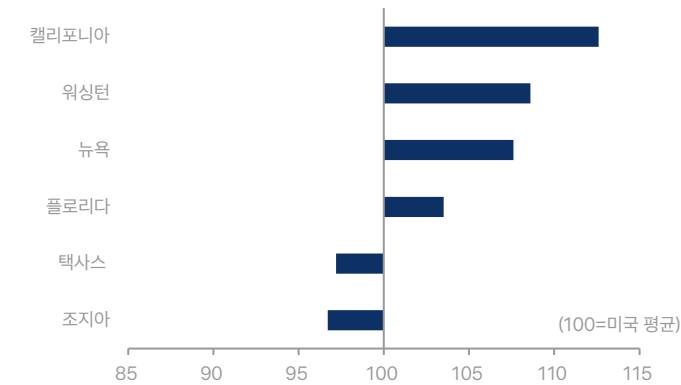
- 2024년 기준 <포춘 500> 기업 중 텍사스에 본사를 둔 기업은 52 곳으로, 미국 내에서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많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2024년 이후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하거나 이전 발표한 세브론, X(트위터), 스페이스 X는 모두 캘리포니아로부터 이전해 오는 경우입니다. 이를 고려했을 때, 텍사스의 유치 기업 수가 캘리포니아를 앞지를 수 있습니다.

4 여기서 캠퍼스는 '기업들이 모여 있는 부지'를 뜻함.

5 해당 주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텍사스는 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일부 주 중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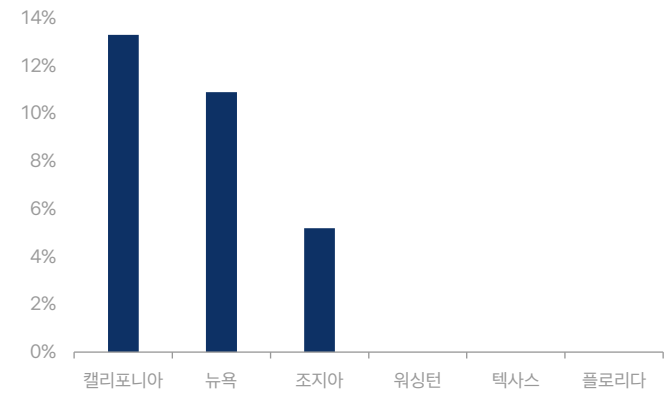
6 위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을 때,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location decision = deal closing) 보조금. 기업의 일자리 창출, 자본 투자가 상당 수준이어서 지역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될 때 지급됨.

[Data-9] 물가지수: 텍사스는 미국 평균보다 3%, 캘리포니아보다 15%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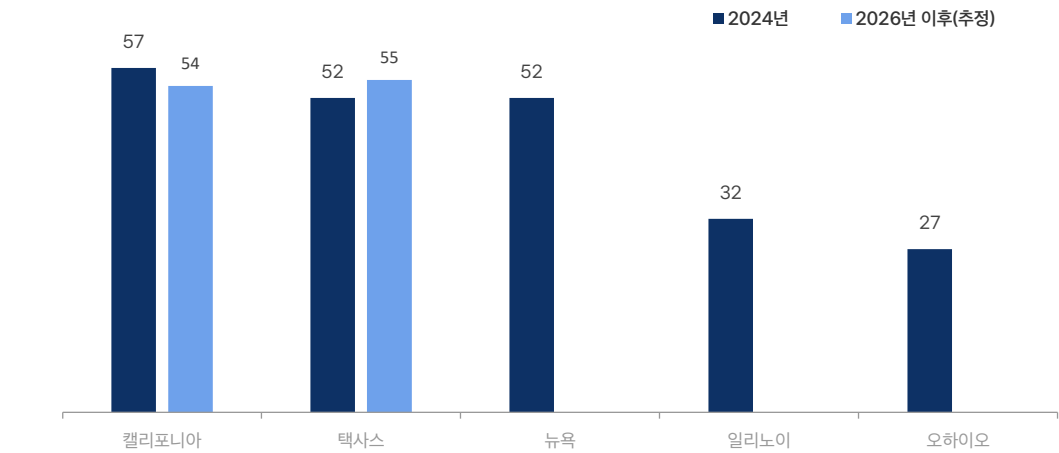
출처: BEA, 토스증권 (Regional Price Parities for States, 2023)

[Data-10] 주 소득세(State Income Tax) 비교: 텍사스 0%, 캘리포니아 최대 13%



출처: Tax Federation, 토스증권 (캘리포니아, 뉴욕은 최고세율 기준, 워싱턴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 소득에는 세율 7~9.9% 적용)

[Data-11] 포춘 500 기업의 본사는 어디에?- 텍사스에 가장 많아질 수도 있다



출처: 포춘, 토스증권 (2024)

2-b. 미래 산업이 자라는 곳

우주 산업, 무인 택시와 같은 미래 산업도 텍사스에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 NASA 는 여전히 텍사스에서 우주 탐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 휴스턴의 존슨우주센터(JSC)는 1960년대부터 유인 우주 비행의 관제 및 훈련기지로 구축되어, 인프라와 전문인력을 축적했습니다.
- 현재도 존슨우주센터는 인류 귀환 달탐사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중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는 단순한 상장을 넘어, 유인미션 운영에 필수적인 인프라와 인력, 협력 네트워크가 이곳에 집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최근에도 장기 화성임무 시뮬레이션(CHAPEA 2 기)을 진행하며 차세대 탐사 준비를 이어가고 있으며, 리더쉽이 텍사스로 인사 이동되는 등 조직 역량이 휴스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2) 자율주행 기업들이 텍사스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2025년 6월, 오스틴에서 테슬라의 '운전자 없는(driverless)' 로보택시 시범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아마존이 인수한 족스(Zoox)도 이곳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주행을 발표했고, 알파벳 산하 웨이모(Waymo)도 우버(Uber)와 협력해 호출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 **제도적 기반:** 텍사스는 2017년 SB 2205 법을 제정해, 일정 안전 요건을 충족하면 운전자 없이도 자율주행차가 주도로를 포함해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주보다 명확한 법적 기반이 조기에 마련되었습니다.
- **도시환경:** 오스틴은 최근 인구 증가로 교통 수요가 늘고 있으며, 도심과 신개발 지역이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이런 환경은 정해진 구역(geofence⁷)에서 제한적으로 자율주행을 시험하기에 적합합니다.
- **생산과 운영의 시너지:** 테슬라의 경우 본사와 기가텍사스 공장이 인근에 있어 차량 생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실제 운영을 한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Data-12] 텍사스 오스틴에 위치한 테슬라 기가팩토리 방문



출처: 토스증권

[Data-13] 테슬라 로드(Tesla Rd.)



출처: 토스증권

7 자율주행 차량이 이 안에서만 운행하도록 설정한 가상의 경계.

[Data-14] 텍사스 오스틴: 우버(Uber)로 부르는 웨이모(Waymo)

– 전용 앱을 이용하는 샌프란시스코와는 다르다



출처: 토스증권

[Data-15] 텍사스 오스틴에서 탄 웨이모

– 작년 대비 웨이모의 성능이 좋아졌다고 느꼈다



출처: 토스증권

[Data-16] 텍사스 오스틴: 테슬라 딜러들이 생각하는 테슬라의 장단점을 들어봤다



출처: 토스증권

[Data-17] 텍사스 오스틴: 작년 대비 사이버트럭의 FSD 경험이 좋아졌다고 느꼈다



출처: 토스증권

[Data-18] 텍사스 댈러스: #1 LCC 사우스웨스트(Southwest) 미팅



출처: 토스증권

[Data-19] 텍사스 휴스턴: 다국적 에너지 기업 SLB 미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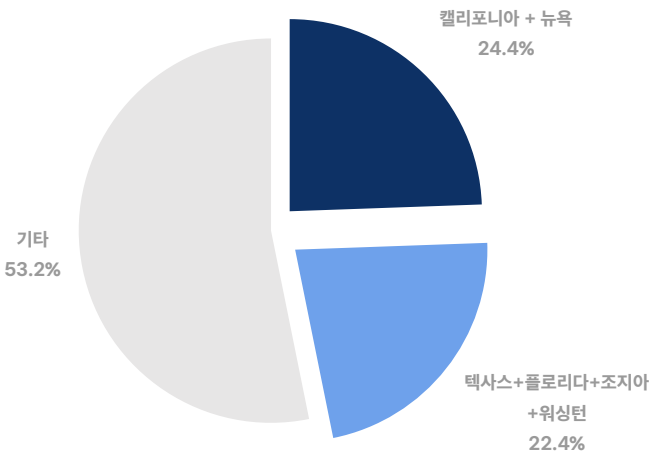
출처: 토스증권

3. 또 다른 성장 주: 플로리다, 조지아, 워싱턴

텍사스가 반도체, 전기차, 상업 우주 산업을 기반으로 미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부상했다면, 이와 비슷하게 특정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을 이끌고 있는 주들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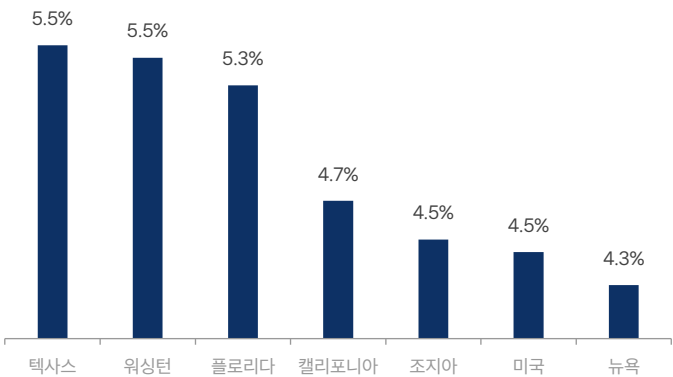
대표적으로 플로리다, 조지아, 워싱턴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세 곳은 금융과 럭셔리 부동산(플로리다), 전기차 및 배터리와 물류산업(조지아), 클라우드와 항공우주(워싱턴) 등 각기 다른 성장 축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최근 인구 및 투자 유입을 이끌어내며, 텍사스와 함께 향후 미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거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Data-20] 경제 성장 기여도: 텍사스+플로리다+조지아+워싱턴이 캘리포니아+뉴욕만큼 기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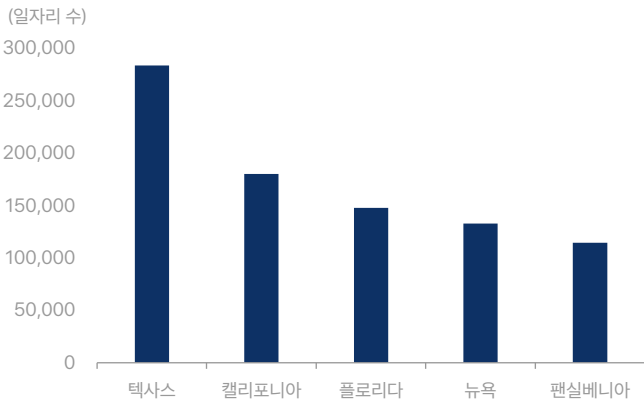
출처: UN, World Bank, 토스증권 (2024)

[Data-21] 미국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워싱턴
- 2000~2024년 연평균 경제 성장률



출처: BEA, 토스증권

[Data-22] 인구 유입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
- 2024년 한 해 동안 늘어난 일자리 수



출처: BLS, 토스증권

3-a. 플로리다: 금융과 고급 부동산

플로리다는 텍사스와 더불어 가장 큰 규모의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는 주입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20 년 이후 플로리다는 텍사스 다음으로 인구 유입이 많았고, 총인구는 2,300 만 명을 넘어서면서 인구 3 위의 주가 되었습니다. 경제 규모도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다음입니다.

전통적으로 플로리다는 관광(디즈니월드)과 농업(오렌지)이 주요 산업이었는데요. 고소득층 및 은퇴자들이 이주해오고, 기업들도 옮겨오면서 금융업의 새로운 허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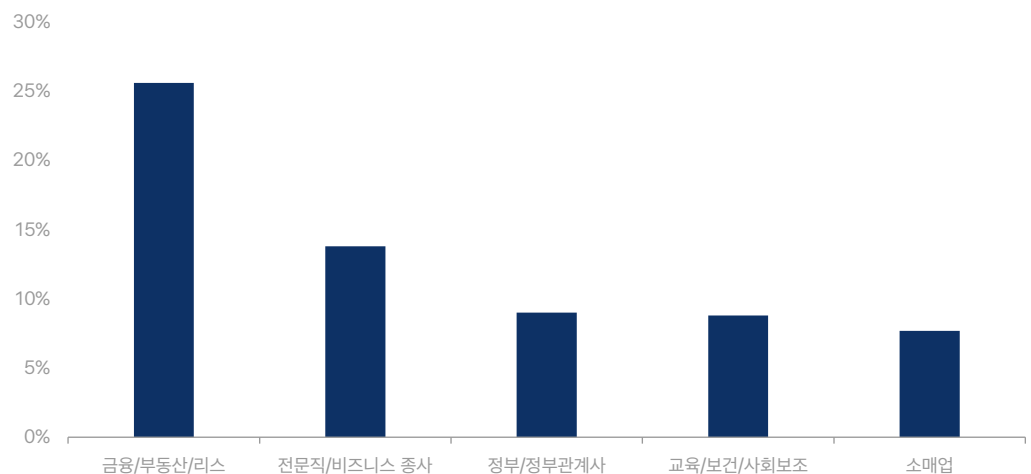
고소득, 은퇴 인구가 모이는 가장 큰 이유는 세제 혜택입니다. 플로리다는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연금/은퇴소득/투자소득에 대한 주세(State Tax)가 없습니다. 이러한 절세 혜택을 받으려면 플로리다 거주자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주가 필수적인 것이지요.

고소득 인구가 늘면 자산관리 및 투자 수요와 주택/건설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금융 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플로리다 마이애미 인근 지역은 10 년 넘게 금융 및 핀테크 기업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 헤지펀드 시티델(Citadel)의 창업자 켄 그리핀은 본사를 시카고에서 마이애미로 이전하며, 이곳이 언젠가는 뉴욕을 제치고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애미를 '월스트리트 사우스'라고 부르기도 했죠.
- 대형 금융사뿐 아니라 많은 자산운용사와 브로커-딜러들도 플로리다에 등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시 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ARK Invest)도 마이애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주택/부동산/건설 수요도 고급 콘도와 주상복합 위주입니다. 럭셔리 시장은 일반 부동산 시장과는 수요가 분리되어 있으며, 특히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고액 자산가들이 부동산을 '안전한 투자'로 인식함에 따라 견조한 성장을 보였습니다.⁸

[Data-23] 플로리다의 산업별 경제 기여도: 금융, 부동산 비중이 높다



출처: BEA, 토스증권 (2024)

8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마이애미에서 100만달러 이상 부동산 거래는 2019년 대비 147% 증가, 1,000만달러 이상의 부동산 거래는 248% 증가했다.

3-b. 조지아: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물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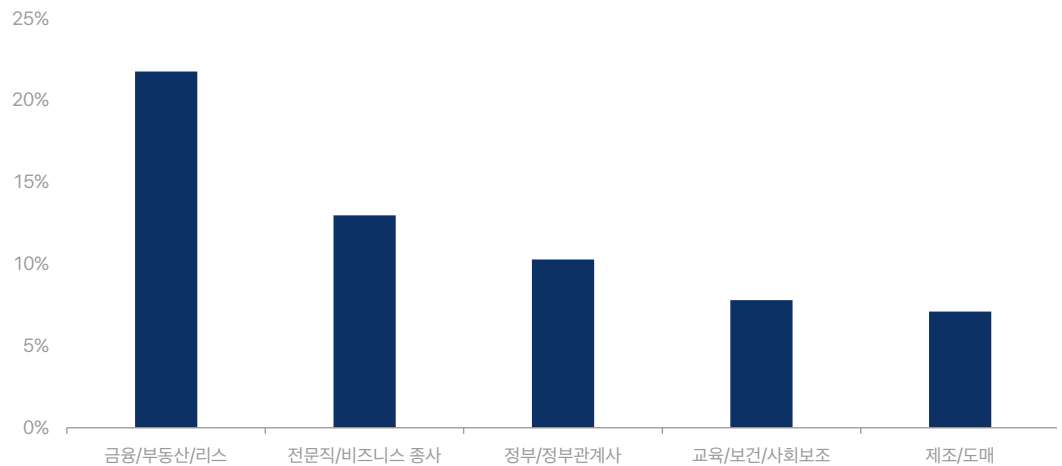
미국 동남부에 위치한 조지아주는 전기차(EV) 제조 클러스터의 핵심입니다.

- 현대차는 브라이언 카운티(Bryan County)에 약 76 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전용 공장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연간 50 만대의 전기차가 생산될 이곳은 8,500 개의 직접고용과 6,900 개의 협력사 일자리를 창출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 현대차는 LG 에너지솔루션과 메타플랜트 지역에 약 43 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셀 합작 공장을 건설 중이며, 연간 30GWh 생산능력을 갖춰 2025~2026 년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 리비안(Rivian)도 조지아에 약 50 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생산 공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연간 40 만 대 생산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류 인프라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바나항(Port of Savannah)은 2023 년 처리량이 550 만 TEU 를 넘어섰으며, 이는 미국 동부 항만 중에서도 가장 빠른 성장세입니다. 사바나항은 자동차·배터리 부품 수입, 완성차 수출에 모두 활용되면서 전기차 밸류체인 필수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지아 주지사가 전기차와 해당 밸류체인 물류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 공항 건설을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유능한 인재 풀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인근에는 미국 내 공학·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대학이 있고 이곳에서는 매년 수천 명의 인재를 배출합니다. 실제로 현대차·LG 에너지솔루션 합작법인은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연구·개발 인재를 지역에서 직접 확보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Data-24] 조지아의 산업별 경제 기여도



출처: BEA, 토스증권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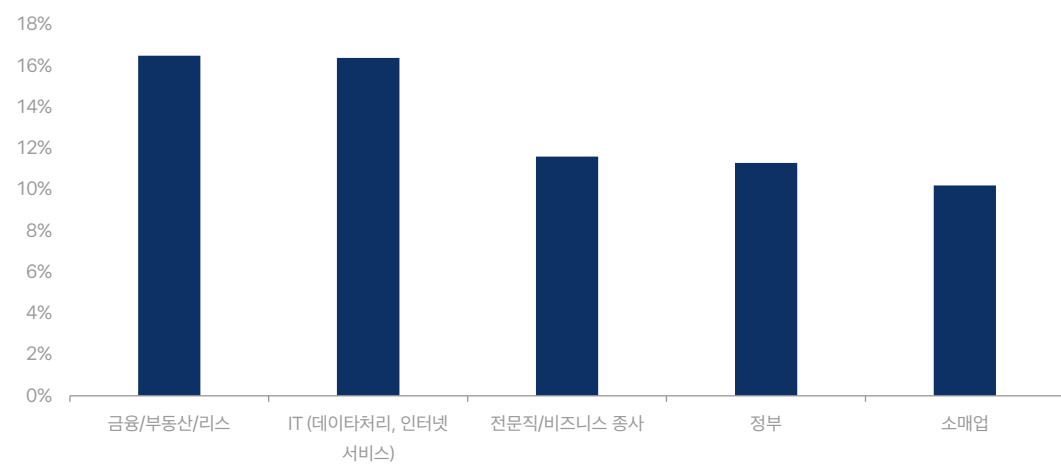
3-c. 워싱턴: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미국 서북부에 위치한 워싱턴주는 전 세계 클라우드와 AI 인프라의 중심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라는 두 거인이 퓨젯사운드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어, 워싱턴은 글로벌 IT 투자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허브로 기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두 기업의 클라우드 매출만 합해도 2,300 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데요. 이는 미국 GDP 의 약 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워싱턴의 두 기업이 글로벌 클라우드 수요를 사실상 책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워싱턴은 또한 항공 및 우주 산업의 전통적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보잉(Boeing, BA)은 시애틀을 기반으로 상업 및 군수용 항공기를 생산 중이고, 아마존 창업자가 설립한 블루오리진(Blue Origin)은 켄트에 본사를 두고 로켓과 우주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Data-25] 워싱턴의 산업별 경제 기여도: 데이터 처리와 인터넷 서비스 비중이 높다



출처: BEA, 토스증권 (2024)

4. 미국,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한다

미국은 단일한 경제가 아니라, 사실상 수많은 거대 주(States) 경제가 모여 있는 연합체(The United States of America)입니다. 따라서 주 하나하나의 규모도 만만치 않은데요. 만약 텍사스, 플로리다 같은 주들이 만약 독립국가라면, 각각이 세계 10 위권의 경제 규모를 기록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처럼 이미 성숙한 선진국이 여전히 더 성장할 거라 보는 이유는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워싱턴 같은 대형 주들이 새로운 성장 사이클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구 이동과 새로운 일자리, 제조 인프라 투자가 맞물리며** 에너지, 주택 건설 및 판매, 헬스케어, 물류 등 전방위 산업에서 당분간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 **에너지 전환, 디지털 인프라(데이터센터), 제조업 리쇼어, 그리고 이에 따르는 물류와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역의 확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다년간의 투자 및 기업 실적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이 '동시다발적인 성장 엔진'을 갖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이 경기 둔화를 겪더라도 다른 지역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서부 해안이 경기 과열 혹은 조정을 겪을 때, 다른 지역에서 인구 이동 및 산업 확장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워싱턴 등 새로운 성장 거점이 부상함에 따라 이 네 곳이 현재 미국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합친 것 못지않은 수준이 됐습니다.

즉, 미국은 단일 지역에 좌우되지 않고, 다층적인 성장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할 국가입니다. 여기에서 투자자에게 중요한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성장 스토리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산업군-지역 은행, 인프라와 EPC, 전력, 물류, 헬스케어-을 투자시 장기 테마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4-a. 새로운 대형주(state)들이 성장하면서 수혜 볼 산업과 기업은?

1) 전력/유틸리티 기업

- 인구 유입과 산업 재편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로 전력/유틸리티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우리가 언급한 주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텍사스의 경우, AI 데이터센터, 퍼미안 유전 지역 산업 확장, 인구와 기업 유입이 맞물리며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¹⁰ 이로 인해 전력회사와 발전사들이 송배전망과 발전소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 텍사스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로는 비스트라 에너지(VST), 센터포인트 에너지(CNP), NRG 에너지(NRG) 등이 있습니다.
- 플로리다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로는 넥스트에라 에너지(NEE), 듀크 에너지(DUK) 등이 있습니다.
- 그밖에 서던(SO)과 아비스타(AVA)가 각각 조지아와 워싱턴에서 매출 및 사업 성장으로부터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기업입니다.

2) 주택/건설/건자재 기업

-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자재 기업과 주택 개발사들이 신규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하며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 텍사스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로는 아코사(ACA), 그린 브릭 파트너스(GRBK)가 있습니다.
- 플로리다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는 인프라 EPC 관련 기업인 마스텍(MTZ), 완타 서비스(PWR), 그리고 주택 건설 및 건자재 기업 DR 호튼(DHI), 테크노글래스(TGLS) 등이 있습니다.

3) 지역은행

- 이주민과 기업이 늘고, 부동산 프로젝트가 성장하면서 지역 은행들의 예금 및 대출이 늘고 있습니다.
- 텍사스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로는 프로스페리티 뱅크셰어스(PB), 스텔러 뱅코프(STEL)가 있습니다.
- 플로리다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로는 시코스트 뱅킹 오브 플로리다(SBCF), 아메리스 뱅코프(ABCB)가 있습니다.
- 조지아의 경우 시노버스 파이낸셜(SNV)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4) 기타

- 이 밖에도 텍사스와 플로리다 매출 비중이 높은 병원 체인인 HCA 헬스케어(HCA), 조지아의 물류 증대 혜택을 볼 노퍽서던(NSC), CSX(CSX), 워싱턴 성장이 의미있는 지표인 데이터센터 리츠 에퀴닉스(EQIX),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DLR)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 ERCOT은 2030년까지 피크 전력 수요가 150,000MW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Data-26] 텍사스, 플로리다 등 성장의 수혜를 볼 기업

기업명(티커)	어떤 측면에서 수혜가 기대되는지
비스트라 에너지(VST)	텍사스는 비스트라 에너지의 주요 사업 시장으로 언급 회사의 텍사스 사업 시장 거래량도 전년 대비 10% 늘어나면서 높은 마진을 기록했다고 발표
센터포인트 에너지(CNP)	텍사스는 데이터 센터, 첨단 제조업,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수출에 힘입어 뚜렷한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음 센터포인트 에너지는 휴스턴 전력 서비스 권역에서 2031년까지 최대 전력 수요가 약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
NRG에너지(NRG)	텍사스는 NRG에너지의 핵심 시장으로, 북부 지역에 2GW 이상의 발전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자체 발전소를 통해 주거용 소매 전력 사업도 운영
넥스트라 에너지(NEE)	플로리다는 인구 증가가 전력 수요를 이끌고 있으며, 인프라 투자에 유리한 규제 환경을 갖추고 있음 또한 다양한 에너지원 활용을 통해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
듀크 에너지(DUK)	플로리다에서 2028~2029년부터 송배전망과 발전 투자를 포함한 프로젝트를 시작
아코사(ACA)	텍사스는 다가구 주택 수요 개선을 뚜렷하며 아코사의 건설 자재 사업의 핵심 시장. 텍사스와 걸프 코스트 지역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강한 수요 존재
그린 브릭 파트너스(GRBK)	그린 브릭 파트너스는 델러스와 오스틴 지역에서 Trophy Signature Homes를 확장하고 있으며, 올해 말 휴스턴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 첫 번째 휴스턴 커뮤니티는 일정에 맞춰 준비되고 있으며, 가을에 개시 진행 예정
DR호튼(DHI)	DR호튼은 미국의 대표적인 주택 건설사. 주택 건설과 주거용 부지 개발, 임대 사업, 그리고 모기지 운영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를 운영. 플로리다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가장 뚜렷한 수요 변화가 나타나는 시장
테크노글래스(TGLS)	플로리다는 중·고층 고급 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강한 수요와 전 부문에 걸친 건전한 시장 환경을 보유하고 있음 테크노글래스의 전통적인 시장으로서 탬파에서 북쪽 지역까지 비닐 창호 수요 확대
프로스페리티 뱅크셰어스(PB)	CNBC가 발표한 2025년 '비즈니스하기 좋은 주' 평가에서 텍사스 2위, 하지만 프로스페리티 뱅크셰어스는 1위 했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텍사스는 기업 친화적인 정치 구조와 주 소득세 부재로 인해 여전히 사람과 기업을 끌어들이고 있음
스텔러 뱅코프(STEL)	텍사스는 탄탄한 시장으로 묘사되며, 기업 친화적인 특성으로 인해 인수합병(M&A) 활동과 업계 통합이 나타남 기업들이 친기업적 환경을 갖춘 주에 집중하면서 텍사스의 매력력이 더욱 부각
시코스트뱅크오브플로리다(SBCF)	플로리다는 강력한 신용(대출) 수요, 경쟁력 있는 은행 시장 특히 플로리다 중부를 중심으로 시코스트뱅크오브플로리다의 영업망 전반에서 지속적인 성장 기회를 보여주며 견조한 경제 여건 입증
HCA 헬스케어(HCA)	지난 몇 년간 플로리다와 텍사스와 같은 지역에서 일자리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남 고용주 제공 보험(employer-sponsored insurance) 수요가 올라갈 시장으로 봄

출처: 각 기업 실적 발표, 토스증권

Compliance Note

- 당사는 발간일 기준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발간일 기준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의 애널리스트와 배우자는 발간일 기준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에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